

# 널뛰는 유가... 제주경제 직격탄 우려

### 휘발유 평균가 0당 1869원... 2년 5개월만 1800원대 경유가격은 휘발유 앞지르며 0당 2000원에 근접 관광산업, 항공료·전세버스 이용료 연쇄 상승 불가피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WTI)가 배럴당 90.9달러(6일 기준)로 치솟으며 제주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가와 고효율 상황이 길어지면 도민의 생활물가 상승은 물론 제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관광산업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항공기와 전세버스, 렌터카 이용료 등 관광 비용이 동반 상승해 국민의 여행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8일 제주시 곳곳 주유소 가격표지판에는 0당 1900원이 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내건 곳들이 확인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도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0당 1869원이다. 이달 1일(1711원)에 견줘 158원 오른 것으로,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은 것은 2023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이달 1일 0당 1643원이던 경유 가격은 4일 1801원으로 휘발유 가격(1786원)을 앞질렀고, 8일엔 1966원까지 뛰며 이달 들어서만 323원 상승했다.

도내 192곳의 주유소 중 22곳은 휘발유 가격을 2000~2030원, 53곳은 경유 가격을 2000~2340원에 판매하는 등 2000원 이상 가격을 표시한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약 2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돼야 할 국제유가가 최근 중동 전쟁 직후 사실상 즉시 국내 판매가에 반영되는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 불만도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유가 상승은 도민들의 유류비 부담 상승과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제주 관광산업이 받게 될 타격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고물가로 소비 줄일 가능성도 적잖기 때문이다.

이달 하순부터 시작될 수학여행단의 제주 방문을 앞두고 전세버스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학여행의 경우 전세버스 비용을 별도로 계약하지 않고 숙식비·교통비·입장료 등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포함해 입찰하는 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내 한 전세버스업체 관계자는 "45인승 전세버스 요금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하루 60만원(부가세 별도) 안팎이다. 수학여행단의 경

우 학교와 여행사가 총액 계약을 한 뒤 여행사는 전세버스업체와 구두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이용 가격을 협의할 당시보다 현재 경유 가격이 약 20% 정도 오른 상황이지만 상승분을 여행사에 모두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오르는 분위기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이 이달 6일 고지한 4월 발권일 기준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7700원(편도)으로, 3월보다 1100원 올랐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유가 인상 초기 단계여서 관광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유가 상황이 길어지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 총량 감소 등 관광산업에 위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교제폭력 신고 매년 증가... "제도 마련" 스토킹범죄예방 조례에 교제폭력까지 확대 추진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다. 교제폭력은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로 꼽히는데, 제주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뤄졌다.

지난 6일 오전 제주도의회 사회의실에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제주경찰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제주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등 현장 전문가들이 모였다. 도내에서 벌어지는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제주에서는 지난 2023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스토킹 범죄에 국한돼 있어 유사한 양상을 보임에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교제폭력 피해자들을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이들을 위한 예방·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연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가족연구부장은 지난해 5월 15~6월 20일 15세 이상 남녀 1030명(19세 이상 성인은 9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 조사' 중 교제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성인 응답자 중 61명(6.0%)이 교제폭력 경험이었다고 답했다. 이 중 여성이 52명(85%)으로 남성(9명·15%)보다 많았다. 교제폭력의 발생 시기는 '교제중(응답자의 75%)'에 집중됐다.

교제폭력 신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제주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는 2022년 1377건에서 2023년 1412건, 2024년 152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22년 342명, 2023년 290명, 2024년 219명이다. 검거 유형으로는 같은 기간 폭행·상해(71.8%)가 가장 많았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 봄철 전정 작업하다... 주의보에도 안전사고 잇따라

주말 제주지역에서 봄철 전정(가지 치기) 작업을 하다 다치는 사고가 잇따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공원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전정 작업을 하다 전기톱에 얼굴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같은날 오후 3시 12분쯤 제주시 조천읍에서도 70대 남성이 전정 작업을 하던 중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과수원에서 전정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전동가위를 사용하다 손가락에 열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날 오후 2시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과수원에서 80대 남성이 감귤나무 전정작업을 하던 중 전동가위에 손가락을 다쳤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오징어 말리는 풍경 7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포구에서 봄벌에 오징어들이 해풍을 맞으며 꼬들꼬들 말라가고 있다. 강희만기자

## 추차도서 그물 걸려 넘어진 60대 긴급이송

추차도에서 그물에 걸려 넘어져 얼굴을 크게 다친 60대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

20분쯤 제주시 주차도 추차보건지 소로부터 60대 남성 A씨가 코뼈 및 안와골절이 의심된다며 긴급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당시 추차항에서 그물에 걸려 넘어진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파견했으며 A씨는 오후 3시 35분쯤 제주항에 도착해 구급대로 인계됐다. 양유리기자

## 중동 정세 불안... 도, 대응 체계 본격 가동 지난 6일 제주지역 상황 점검·대응회의 개최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제주도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제주지역 상황 점검 및 대응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과 물가 동향 등 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양재운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도 관련 부서를 비롯해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 위기 동향과 정부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제주지역 경제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제주도는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5일부터 '특별 물가안정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물가 조사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해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격 담합 신고센

터도 운영 중이다. 또 중동 상황과 관련해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전담 창구를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유류와 가스 비축 현황 등 에너지 수급 상황도 점검했다. 도는 현재 도내 유류와 가스 등 에너지 비축량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으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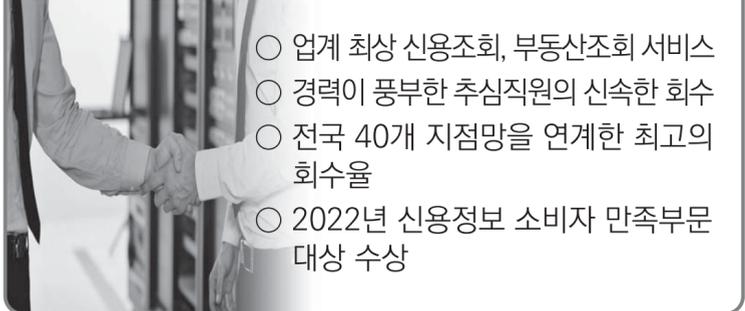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도 당초 7월에서 5월로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도는 앞으로도 중동 상황에 따른 지역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과 물가 안정 등 지역경제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채현기자

#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 대상채권

-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